

도·농 지역별 삶의 질 분석에 따른 사회적 경제조직의 발전방향*

-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

Developing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QoL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 Focused on Chungcheongbuk-do -

네모토 마사쓰구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Abstract

Nemoto Masatsug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spect development directions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 based on analysis of QoL between urban and rural area. This survey was conducted on 1,214 residents in ChungCheong Buk-do. As result, in urban area, there are lack of social security, social activities and mutual confidence. Therefore building intermediary organizations is effective in this kind of area. In complex area, culture, education and local media is more needed. In rural area, the QoL of environment, mutual confidence not only resident but also public servant are significantly high. Thus it is worth considering to promote intermediary organization and evaluation system by residents with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주제어: 삶의 질, 사회적 경제조직, 도농지역

Keywords: Quality of lif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urban and rural area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9-413-B 00031).

I. 서론

고용구조와 사회적 수요의 변화 특히 IMF 위기 이후 노동시장 경쟁격화와 저출산 고령화를 배경으로 새로운 고용정책과 사회 안전망의 정비 그리고 가사노동 등 사회 서비스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실업극복운동의 시작,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자활제도,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육성법'이라고 한다),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고 한다) 시행으로 이른바 일련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법제도가 형성되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며('육성법' §2), 특히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12년 12월 말 기준 723개가 인증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가 관할하고 있으며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2012년 시행)' §2)을 말하며, 2013년 1월 31일 기준 225개 협동조합¹⁾이 인가되어 있다.

이에 기존 연구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개선, 인적자원 개발(인식도, 기업가 정신, 청년 사회적 기업가), 성과분석(고용창출, 마케팅, 생태적 소비), 자원연계(정부지원, 세계 지원, 금융지원, 책임원가, 사회공헌, 사회적 증시) 등으로 주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독립 변수로 설정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역성, 지역주민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거의 없어 지역사회 위주의 연구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장우진, 2011; 네모토, 2012: 202-203).

특히 '육성법'에 제시되어 있는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그리고 '기본법'에서도 명기되어 있는 '지역사회 공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삶의 질, 지역사회의 수요에 대한 현상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생활공간과 생활환경에 관련된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과 연관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진단 및 주민 생애주기적 차원에서부터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최영출, 2012b: 22).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를 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및 복합지역별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사회적 경제조직 현황과 대조함으로써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사회적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 연합회, 일반 협동조합 합계.

II. 사회적 경제조직과 삶의 질

1. 사회적 경제조직의 개념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사명 그리고 시장의 조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의 창출과 경제적 가치의 창출이라는 특성이 혼합되어 있는 개념으로 특히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훈련하거나 고용에 재통합하는 활동 및 사회 서비스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Borzaga and Defourny, 2001).

한국에 있어 사회적 경제조직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민간 영리 영역에도 공공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 제3영역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그 구체적 제도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의 제정되었다.

해외에 있어서는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벨기에 '사회적 목적회사', 네델란드 '사회적연대 협동조합', 영국 CIC(Community Interest Company), 미국 L3C(Low-profit Limited Liability Company), 그리고 일본의 NPO법인 등이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에 관한 선행연구에 있어 명성준(2011)은 사회 서비스 제공이나 취약계층에게 고용을 제공하는 차원을 벗어나 지역사회 수요에 비중을 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현안과 관련해 김학실(2012: 268)은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100인 토론회를 대상으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해 '지역사회의 수요'와 '문제해결' 등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도출하였다. 이 중 '지역'의 중요성은 최근 5년간(2007년부터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 관련 논문 59편을 분석해 '지역성'을 핵심어로 추출한 최영출(2012a: 158)의 연구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표현이 이미 '육성법' 제2조에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성을 반영한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향하기 위해 '삶의 질' 관련 조사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2. 삶의 질 관련 선행연구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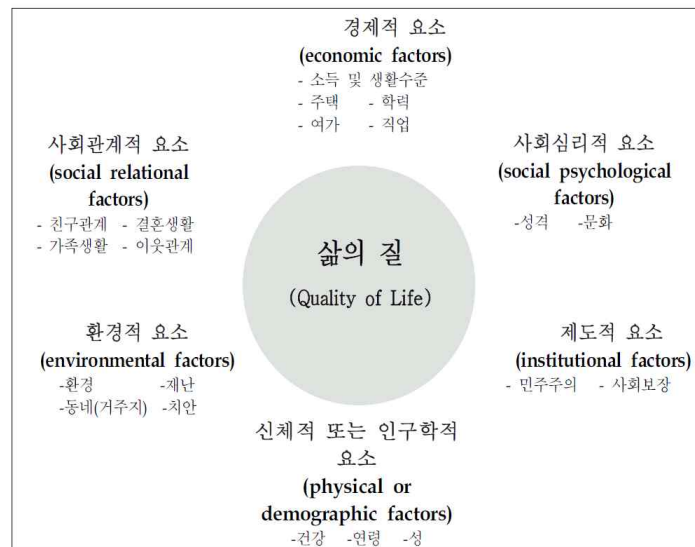
1인당 GNP 2만 달러를 넘어선 국가에서는 소득 증가가 지속적으로 삶의 질 내지 행복감 증대에 영향을 주지 않음이 그동안의 연구결과로 밝혀져 있다. 또한 생산성에 지나치게 치중하면서 다른 삶의 영역들이 희생되어 왔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삶의 질을 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경제조직이 실제적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와 정책적 대안이 요청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상이한 전통적 기반 즉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전자는 계량적이고 객관적 측면을 강조하고 주로 다양한 사회지표를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하는 전략을 택해 온 한편, 후자는 개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감각을 측정해 왔다. 이러한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삶의 질이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함으로써 결정되는 것이며, 그 향상을 위해서는 환경적 자원과 사회경제적 자원, 그리고 주관적 만족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경제지표 위주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김승권 외, 2008: 61-63).²⁾

세계보건기구는 질병치료와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삶의 질 개선도 주요한 목표로 설정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적 규모의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삶의 질을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해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에 대한 개인적 자각'으로 정의하였다(WHO: 1993: 한정균, 2010: 14).

김승권 외(2008: 15-17)에 의하면 삶의 질의 결정요인은 <그림 1>처럼 경제적 요소, 사회관계적 요소, 사회심리적 요소, 제도적 요소, 환경적 요소, 신체적 또는 인구학적 요소의 여섯 가지로 구성된다.



자료: 김승권 외(2008: 18).

<그림 1> 삶의 질 결정모형

그 외 '삶의 질'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시도되고 있으며, 어떠한 구성요소를 평가해야 하

2) 반면 삶의 질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첫째, 이론적 토론을 하더라도 개인수준의 삶의 질에 머물고 있다. 둘째, 사회구조나 조건을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개인을 수동적인 존재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삶 자체가 구성되는 영역을 모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핵심적 조건변수를 추출하기가 어렵다. 넷째, 인간의 사회적 관계 영역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다(김승권 외, 2008: 63).

는가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 연구자들이 찬동하고 있는 공통항은 설문지에는 많은 차원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과 삶의 질은 다면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Fayers, 2000; 園田恭一, 2010: 42-43).

만다이(萬代隆, 2001)는 원래 주관적이고 수치로 표현하기 어려운 질적 요소를 수량화시켜 통계학적 분석방법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삶의 질에 관한 충분한 논의 가운데 착실하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고 무리하게 결론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의 개념을 통해 만족감이나 충실감 등 인간의 내면적, 질적 가치의 중요성과 다양한 가치관을 서로 받아들여려고 하는 필요성이 재인식되는 것이라고 한다(園田恭一, 2010: 46).

기존 연구에 따르면 삶의 질에 관한 대표적 지표로서는 생활경제, 문화, 건강, 교육, 복지, 여가, 주거, 환경, 안전, 교통, 사회참여, 신뢰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3. 도·농 지역별 사회적 경제조직의 현황

충청북도 내 기초자치단체를 도시지역, 농촌지역 그리고 도농복합 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수를 나타내면 다음 <표 1>과 같다. 특히 조직 1개당 인구 몇 명이라는 비율로 보면 농촌지역이 도시(복합)지역보다 더 높은 밀도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충청북도 내 사회적 경제조직 현황

구분	시·군명	(예비)사회적기업 수	마을기업 수	협동조합 수	합계	인구	1조직당 인구
도시지역	청주시	45	4	0	49	659,539	13,460
복합지역	충주시	10	6	1	17	208,233	12,249
	제천시	6	2	1	9	137,249	15,250
농촌지역	청원군	9	3	1	13	156,127	12,010
	보은군	2	3	0	5	34,791	6,958
	옥천군	5	2	0	7	53,680	7,669
	영동군	5	3	0	8	50,252	6,282
	증평군	1	2	0	3	33,509	11,170
	진천군	3	4	0	7	62,609	8,944
	괴산군	3	4	0	7	36,866	5,267
	음성군	3	3	0	6	91,400	15,233
단양군	4	3	0	7	31,697	4,528	

인구는 2010년 12월 31일, (예비)사회적기업 수는 2012년 10월, 마을기업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업년도, 협동조합은 2013년 2월 기준.

Ⅲ. 조사 및 분석결과

1. 조사과정

1) 조사기간 및 대상

설문조사 기간은 2012년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지역은 충청북도 시·군 중에서 시 단위는 청주시 상당구 및 흥덕구, 제천시를 대상으로 하였고, 군 단위는 청원군, 음성군, 보은군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령대를 20세 이상 성인에 한정하였다. 설문지는 1,300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분석에 문제가 되는 설문지를 제외한 총 1,21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시군별 응답자 구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시군별 응답자 구성(단위: 명)

구 분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흥덕구	청원군	제천시	음성군	보은군	합 계
합계	197	406	84	187	150	189	1,213

2) 조사기간 및 대상

삶의 질 설문은 일본 도카이시(東海市) 도시형성 시민 위원회가 작성한 설문지(東海市 企劃政策課, 2011) 및 EU가 실시한 세계 주요도시 행복도 및 경쟁력 비교연구 프로젝트 설문지(김승권 외, 2008: 45)를 참조하였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2011년 청주시민의 행복도 및 삶의 질 조사' 설문지를 토대로 일부 보완해 작성하였다.

행복지수는 전국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2008년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에서 개발되고 타당도 및 신뢰도가 인정된 '한국인 행복지수 조사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인구사회학적 변인 9개 문항, 삶의 질 관련 38개 문항으로 각각 10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구성하였다. 구체적 항목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으며, 개인 차원과 집단 차원의 설문을 일괄해 구성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에 자기 기입식으로 응답하는 방법으로 분석은 SPSS를 통해 실시하였다.

〈표 3〉 삶의 질에 대한 설문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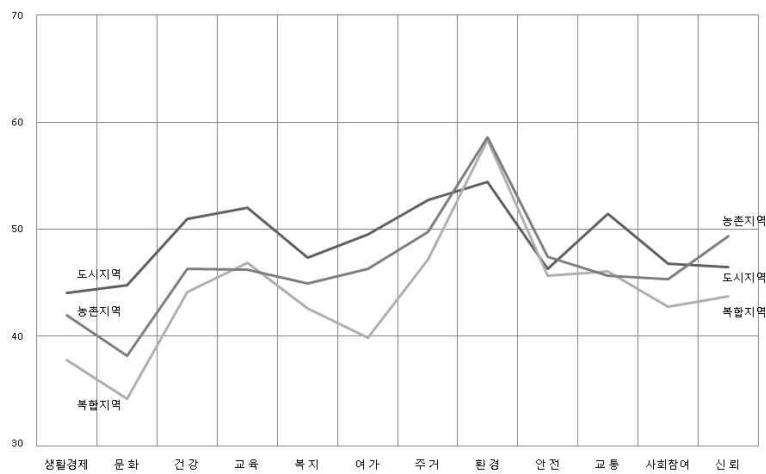
구분	항 목
인구학적 변인	1. 성별, 2. 연령, 3. 교육수준, 4. 월 가구 소득, 5. 직업, 6. 결혼상태, 7. 종교, 8. 주거형태, 9. 거주지
생 활 경 제	1. 우리 지역사회에는 많은 취업기회가 있다(취업기회). 2. 우리 지역사회 생활물가는 적정하다(생활물가). 3. 우리 지역사회는 창업 여건이 좋다(창업여건). 4. 나(가족)의 고용상태는 안전하다(고용상태).
문 화	5.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시설은 충분하다(문화시설). 6.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지는 잘 보호/관리되고 있다(문화유적). 7. 우리 지역사회는 공연, 전시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공연전시).
건 강	8. 나는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 9. 우리 지역사회 보건소는 적절한 건강교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10. 우리 지역사회 의료수준에 만족한다(의료수준).
교 육	11. 우리 지역사회 학교 교육에 만족한다(학교교육). 12. 우리 지역사회는 평생교육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다(평생교육). 13. 가계 지출 중 교육비 지출의 비중이 높다.
복 지	14. 개인과 가족 위기 시 나는 시의 공공기관이나 시설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공 공도움). 15. 우리 지역사회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며 보호하기에 좋은 곳이다(출산양육). 16. 우리 지역사회는 노인, 장애인, 빈민들과 같이 사회적 약자에게 많은 편의를 제 공하고 있다(약자보호).
여 가	17. 나는 여가시간이 충분하다(여가시간). 18. 우리 지역사회에는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이 충분하다(여가시설). 19. 나는 나의 여가활동에 만족한다(여가활동).
주 거	20.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내 집 마련이 용이하다(내 집 마련). 21. 나는 살고 싶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거주만족). 22. 나는 주거환경에 만족한다(거주환경).
환 경	23. 우리 지역사회 먹는 물은 안전하다(물). 24. 우리 지역사회 공기는 깨끗하다(공기). 25. 우리 지역사회 쓰레기 처리는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다(쓰레기).
안 전	26. 우리 지역사회는 밤에 걸어 다니기 안전하다(밤길 안전). 27.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지역사회로부터 신속하고도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 다(사고 도움). 28. 우리 지역사회는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곳이다(아이 안심).
교 통	29. 우리 지역사회는 자전거를 타기에 편하다(자전거). 30. 우리 지역사회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하다(대중교통). 31. 우리 지역사회는 교통약자(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들이 다니기에 편리하다 (교통약자). 32. 우리 지역사회는 걷기에 편리하다(걷기 편리).
사 회 참 여	33. 우리 시(군)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주민의견). 34. 시(군)에 내 의견을 제시하는데 아무런 제약이나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의견제 약). 35. 나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신뢰	36. 우리 지역의 공무원은 청렴하고 정직하다(공무청렴). 37. 나는 우리 지역 언론을 신뢰한다. 38. 나는 이웃을 믿고 신뢰한다(이웃 신뢰).

2. 분석결과

설문조사 결과 95% 신뢰수준에 ± 2.25 의 표본오차가 산출되었다. 지역별 삶의 질 만족도 평균값은 다음 <표 4> 및 <그림 2>와 같다.

<표 4> 지역별 삶의 질 평균값

구분	도시지역	복합지역	농촌지역
생활경제	44.1	37.8	42.0
문화	44.8	34.2	38.2
건강	51.0	44.1	46.3
교육	52.0	46.9	46.2
복지	47.4	42.6	45.0
여가	49.5	39.9	46.3
주거	52.7	47.2	49.8
환경	54.5	58.4	58.6
안전	46.3	45.7	47.4
교통	51.5	46.1	45.7
사회참여	46.8	42.8	45.4
신뢰	46.5	43.7	49.4
평균	48.9	44.1	46.7



<그림 2> 지역별 삶의 질 평균값 그래프

1) 생활경제

전체적 평균값 그래프로 보면 복합지역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은 취업기회, 생활물가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복합지역에서는 창업여건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복합지역에 대한 창업여건 마련이 과제로 제기된다.

〈표 5〉 생활경제

세부항목	중요도 지표	도시지역 (a)	복합지역 (b)	농촌지역 (c)	분산분석	다중비교 (Scheffe)
1. 취업기회	평균	4.41	3.41	4.16	F(2, 1205) = 17.4, p<.001	a>b ^{***} b<c ^{***}
	(표준편차)	(1.96)	(1.71)	(2.06)		
2. 생활물가	평균	4.21	3.79	3.88	F(2, 1208) = 5.15, p<.01	a>b [*] a>c [*]
	(표준편차)	(1.98)	(1.77)	(2.08)		
3. 창업여건	평균	3.81	3.03	3.64	F(2, 1203) = 12.0, p<.001	a>b ^{***} b<c ^{**}
	(표준편차)	(1.76)	(1.70)	(2.18)		
4. 고용상태	평균	5.15	4.80	4.94	F(2, 1200) = 2.02	
	(표준편차)	(2.29)	(2.31)	(2.48)		

*p<.05, **p<.01, ***p<.001

2) 문화

전체적 평균값 그래프로 보면 복합지역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은 문화시설, 문화유적, 공연전시의 모든 항목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복합지역에서는 문화시설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복합지역에 대한 문화시설 마련이 과제로 제기된다.

〈표 6〉 문화

세부항목	중요도 지표	도시지역 (a)	복합지역 (b)	농촌지역 (c)	분산분석	다중비교 (Scheffe)
5. 문화시설	평균	4.32	2.86	3.43	F(2, 1204) = 46.5, p<.001	a>b ^{***} b<c ^{**} a>c ^{***}
	(표준편차)	(2.01)	(1.90)	(2.10)		
6. 문화유적	평균	4.92	4.42	4.44	F(2, 1201) = 10.4, p<.001	a>b ^{**} a>c ^{***}
	(표준편차)	(1.75)	(1.76)	(1.94)		
7. 공연전시	평균	4.37	3.04	3.47	F(2, 1205) = 40.9, p<.001	a>b ^{***} a>c ^{***}
	(표준편차)	(2.00)	(1.98)	(2.18)		

*p<.05, **p<.01, ***p<.001

3) 건강

전체적 평균값 그래프로 보면 복합지역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은 의료수준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7〉 건 강

세부항목	중요도 지표	도시지역 (a)	복합지역 (b)	농촌지역 (c)	분산분석	다중비교 (Scheffe)
10.의료수준	평균	5.34	4.66	4.87	F(2, 1207) =9.5, p<.001	a>b** a>c**
	(표준편차)	(2.14)	(2.06)	(2.26)		

*p<.05, **p<.01, ***p<.001
세부항목 8과 9는 분석 가능한 데이터 없음.

4) 교육

전체적 평균값 그래프로 보면 농촌지역의 만족도가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은 평생교육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8〉 교 육

세부항목	중요도 지표	도시지역 (a)	복합지역 (b)	농촌지역 (c)	분산분석	다중비교 (Scheffe)
11.학교교육	평균	5.04	4.77	5.13	F(2, 1202) =2.4,	
	(표준편차)	(1.88)	(1.77)	(2.00)		
12.평생교육	평균	5.05	3.81	3.79	F(2, 1204) =64.9, p<.001	a>b*** a>c***
	(표준편차)	(1.88)	(1.83)	(1.97)		

*p<.05, **p<.01, ***p<.001
세부항목 13은 분석 가능한 데이터 없음.

5) 복지

전체적 평균값 그래프로 보면 복합지역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은 출산양육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9〉 복 지

세부항목	중요도 지표	도시지역 (a)	복합지역 (b)	농촌지역 (c)	분산분석	다중비교 (Scheffe)
14.공공도움	평균	4.70	4.20	4.52	F(2, 1202) =4.5, p<.05	a>b*
	(표준편차)	(2.03)	(1.90)	(2.08)		
15.출산양육	평균	4.86	4.14	4.30	F(2, 1204) =13.9, p<.001	a>b*** a>c***
	(표준편차)	(1.97)	(1.89)	(2.11)		
16.약자보호	평균	4.76	4.46	4.71	F(2, 1204) =1.6,	
	(표준편차)	(1.93)	(1.84)	(2.09)		

*p<.05, **p<.01, ***p<.001

6) 여가

전체적 평균값 그래프로 보면 복합지역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은 여가시간, 여가시설, 여가활동의 모든 항목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한편, 복합지역은 그 모든 항목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복합지역에 대한 여가시간, 시설, 활동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10〉 여 가

세부항목	중요도 지표	도시지역 (a)	복합지역 (b)	농촌지역 (c)	분산분석		다중비교 (Scheffe)
17.여가시간	평균	5.14	4.27	4.78	F(2, 1205)	=11.2, $p<.001$	a>b*** b<c* a>c*
	(표준편차)	(2.20)	(2.17)	(2.35)			
18.여가시설	평균	4.73	3.64	4.11	F(2, 1205)	=26.2, $p<.001$	a>b*** b<c* a>c***
	(표준편차)	(1.96)	(1.74)	(2.11)			
19.여가활동	평균	5.11	4.05	4.76	F(2, 1205)	=17.2, $p<.001$	a>b*** b<c** a>c*
	(표준편차)	(2.11)	(1.97)	(2.34)			

* $p<.05$, ** $p<.01$, *** $p<.001$

7) 주거

전체적 평균값 그래프로 보면 복합지역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은 거주만족, 거주환경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한편, 복합지역은 거주만족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복합지역에 대한 거주만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11〉 주 거

세부항목	중요도 지표	도시지역 (a)	복합지역 (b)	농촌지역 (c)	분산분석		다중비교 (Scheffe)
20.내집마련	평균	4.49	4.50	4.60	F(2, 1198)	=0.4,	
	(표준편차)	(1.97)	(1.95)	(2.19)			
21.거주만족	평균	5.62	4.60	5.21	F(2, 1197)	=13.5, $p<.001$	a>b*** b<c* a>c*
	(표준편차)	(2.33)	(2.36)	(2.56)			
22.거주환경	평균	5.60	5.10	5.18	F(2, 1201)	=6.2, $p<.01$	a>b* a>c*
	(표준편차)	(2.21)	(2.10)	(2.35)			

* $p<.05$, ** $p<.01$, *** $p<.001$

8) 환경

전체적 평균값 그래프로 보면 도시지역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지역은 공기에 관해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표 12〉 환 경

세부항목	중요도 지표	도시지역 (a)	복합지역 (b)	농촌지역 (c)	분산분석	다중비교 (Scheffe)
23.물	평균	5.42	5.31	5.50	F(2, 1201) =0.5,	
	(표준편차)	(1.98)	(2.13)	(2.28)		
24.공기	평균	5.50	6.63	6.82	F(2, 1203) =51.9, $p<.001$	a<b*** a<c***
	(표준편차)	(2.10)	(2.10)	(2.27)		
25.쓰레기	평균	5.39	5.55	5.60	F(2, 1203) =1.3,	
	(표준편차)	(2.12)	(1.91)	(2.23)		

* $p<.05$, ** $p<.01$, *** $p<.001$

9) 안전

전체적 평균값 그래프로 보면 복합지역의 만족도가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각 세부항목에 있어서는 아이안심에서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낮은 것 외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13〉 안 전

세부항목	중요도 지표	도시지역 (a)	복합지역 (b)	농촌지역 (c)	분산분석	다중비교 (Scheffe)
26.밤길안전	평균	4.65	4.74	4.80	F(2, 1204) =0.5,	
	(표준편차)	(2.29)	(2.13)	(2.46)		
27.사고도움	평균	4.64	4.40	4.70	F(2, 1202) =1.5,	
	(표준편차)	(2.02)	(1.87)	(2.01)		
28.아이안심	평균	4.62	4.55	4.97	F(2, 1201) =4.4, $p<.05$	a<c*
	(표준편차)	(1.97)	(1.84)	(2.20)		

* $p<.05$, ** $p<.01$, *** $p<.001$

10) 교통

전체적 평균값 그래프로 보면 농촌지역의 만족도가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은 대중교통, 교통약자 항목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복합지역과 농촌지역에 대한 교통 만족도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14〉 교 통

세부항목	중요도 지표	도시지역 (a)	복합지역 (b)	농촌지역 (c)	분산분석	다중비교 (Scheffe)
29.자전거	평균	4.88	4.46	4.74	F(2, 1201) =2.7,	
	(표준편차)	(2.03)	(1.70)	(2.51)		
30.대중교통	평균	5.51	4.53	4.48	F(2, 1199) =31.4, $p<.001$	a>b*** a>c***
	(표준편차)	(2.12)	(2.14)	(2.37)		
31.교통약자	평균	4.68	4.14	4.20	F(2, 1197) =9.7, $p<.001$	a>b** a>c**
	(표준편차)	(1.92)	(1.68)	(2.14)		
32.걸기편리	평균	5.45	5.29	5.08	F(2, 1202) =3.8, $p<.05$	a>c*
	(표준편차)	(1.96)	(2.00)	(2.37)		

* $p<.05$, ** $p<.01$, *** $p<.001$

11) 사회참여

전체적 평균값 그래프로 보면 복합지역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은 주민의견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복합지역에서는 의견제약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복합지역에 대한 의견제약이 과제로 제기된다.

〈표 15〉 사회참여

세부항목	중요도 지표	도시지역 (a)	복합지역 (b)	농촌지역 (c)	분산분석	다중비교 (Scheffe)
33.주민의견	평균	4.66	4.19	4.37	F(2, 1202) =6.3, $p<.01$	a>b** a>c*
	(표준편차)	(1.71)	(1.68)	(1.91)		
34.의견제약	평균	4.63	4.06	4.49	F(2, 1200) =6.7, $p<.01$	a>b** b<c*
	(표준편차)	(1.83)	(1.74)	(1.97)		
35.사회활동	평균	4.82	4.60	4.87	F(2, 1201) =1.1,	
	(표준편차)	(2.07)	(2.11)	(2.32)		

* $p<.05$, ** $p<.01$, *** $p<.001$

12) 신뢰

전체적 평균값 그래프로 보면 복합지역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은 공무원령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복합지역에서는 지역언론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복합지역에 대한 지역언론의 필요성이 과제로 제기된다.

〈표 16〉 신뢰

세부항목	중요도 지표	도시지역 (a)	복합지역 (b)	농촌지역 (c)	분산분석		다중비교 (Scheffe)
36.공무청렴	평균	4.44	4.04	4.85	F(2, 1199)	=10.1, $p<.001$	b<c*** a<c*
	(표준편차)	(2.02)	(2.09)	(2.33)			
37.지역언론	평균	4.31	3.84	4.50	F(2, 1202)	=7.5, $p<.01$	a>b* b<c**
	(표준편차)	(1.95)	(1.87)	(2.03)			
38.이웃신뢰	평균	5.39	5.24	5.67	F(2, 1203)	=3.7, $p<.05$	
	(표준편차)	(1.92)	(1.88)	(2.16)			

* $p<.05$, ** $p<.01$, *** $p<.001$

IV. 충북지역 사회적 경제조직의 발전방향

1. 지역별 과제

1)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환경과 안전, 사회참여, 신뢰 외 항목에서는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특히 취업기회, 생활물가, 문화 전반, 의료수준, 평생교육, 출산양육, 여가 전반, 거주만족, 거주환경, 대중교통, 교통약자, 주민의견 등 세부항목이 다른 지역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공기, 아이안심 등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지역에서는 향후 환경과 안전, 사회참여, 신뢰 등에 대한 삶의 질 제고가 요구되며, 이와 관련해 복지/돌봄, 환경과 같은 분야 및 사회참여와 신뢰를 높이는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의 육성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복합지역

복합지역은 교육과 교통 외 모든 항목에서 비교적 낮은 값을 나타냈으며, 특히 창업여건, 문화시설, 여가 전반, 거주만족, 의견제약, 지역언론 등 세부항목이 다른 지역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창업, 문화, 여가, 거주만족과 같은 문화/교육 영역과 언론을 통해 의견을 자유로이 표출할 수 있는 방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농촌지역

농촌지역은 환경과 신뢰가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세부항목별로는 공무청렴에서 다른 지역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농촌지역의 삶의 질은 도시지역과

복합지역의 중간정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환경, 신뢰, 공무청렴에 대한 높은 평가를 활용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2. 정책적 함의

지금까지 행정기관 혹은 기업이 지원해 준다는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이 이루어져 왔지만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가 시사하는 바는 우선 지역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다르고 이에 적합한 지원책 강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즉 도시지역에서는 복지, 사회참여 등을 촉진하는 중간지원조직, 복합지역에서는 문화, 교육과 연계된 지역언론, 그리고 농촌지역에서는 환경, 신뢰성에 기초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행정, 기업 당국은 사회적 경제조직 자체에 대한 이해에 더해 지역과제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고, 그 원활한 연결을 선도하는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도·농 지역별 삶의 질 분석을 통해 사회적 경제조직의 발전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충북지역 6개 시군 주민들의 삶의 질을 조사되었고 6개 시군을 도시지역, 복합지역, 농촌지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지역에서는 환경과 안전³⁾, 사회참여, 신뢰 등에 대한 삶의 질 제고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사회참여와 신뢰를 높이는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중요성이 도출되었다.

복합지역에서는 창업, 문화, 여가, 거주, 언론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 교육영역 및 지역언론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농촌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도시지역과 복합지역의 중간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환경, 신뢰, 공무청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와 연계된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이 적합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충북지역의 전반적 발전방향으로는 도시부에 중간지원조직을 두되, 복합지역의 문화, 교육, 언론 활성화 및 농촌지역의 환경, 신뢰, 공무청렴과 유기적 연계를 구축해 나

3) 가정 내 폭력이나 범죄 발생의 증가에도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 경찰에게는 여의치 않은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에 있다. 국내 방범산업의 성장은 시장 지향성이 높지만 사회문제 측면이 간과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 서비스 전반에 대한 수요를 발견하고 접근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주거환경 내에서의 치안활동 강화 및 안전예방 시설 강화, 즉 안전 서비스 영역의 사회적기업의 역할 필요성과 그 진출 가능성이 제안된 바 있다(김학실·이주호, 2012).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별 분석에 그치고 있어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삶의 질 문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문제이다.⁴⁾ 따라서 향후 주민 스스로가 인식하는 생활과제를 정책 과제로 추출하고 지역주민에 의한 참여와 평가 시스템을 구축(지역과제 및 과제해결을 위한 워크숍 운영지원, 성과과제 달성도를 측정하는 지표조사 등)하는 동시에 사회적 경제조직의 전문성 향상과 재정기반 확립을 도모해 가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학실. (2012).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요인 탐색. 「지방정부연구」, 16(1): 259-277.
- 김학실·이주호. (2012).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조성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 모색: 안전도시 설계 영역에 대한 AHP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8(3): 85-104.
- 김승권·장영식·조홍식·차명숙. (2008). 「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네모토 마사쓰구. (2012). 도시 저개발 지역 주민요구에 기초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정책의 적용과 지역적 사회 안전망의 구축 가능성: 충북 청주시 '수암골'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3(4): 201-224.
- 명성준. (2011).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특성과 방향. 「한국지방행정학보」, 8(1): 97-114.
- 장우진·오승석. (2011). 사회적기업의 업무환경과 종사자 만족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지방행정학보」, 8(2): 111-131.
- 장우진·홍성우. (2011). 지역성에 기반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방향: GIS기법을 이용한 검토. 「지역발전연구」, 20(2): 189-212.
- 장원봉. (2012). 사회적기업 제도화의 현실과 전망.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고용유관기관 상생 협약식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 포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시청.
- 천명자. (2007).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에서 젠더화된 '나이듦'에 관한 연구: 40~50대 수도권지역 내 기혼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여성학 석사학위논문.
- 최선화. (1999).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노인의 빈곤 원인. 「한국가족복지학」, 3: 187-211.
- 최영출. (2012a). 사회적기업의 정책요소분석을 통한 적정모형 탐색. 「한국비교정부학보」, 16(1): 149-166.
- 최영출. (2012b). 지방정부와 사회적기업. 「지방행정」, 61(708): 22-25.

4) 예를 들어 무연(無緣) 사회라고 불리는 문제(鎌田靖, 2011)를 들 수 있을 것이다.

- 최운실·이희수·변종임. (2003). 생애단계에 따른 평생교육 체제 모델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9(3): 299-325.
- 최은영. (2007). 보살핌노동과 젠더: 복지국가재편의 새로운 차원. 『한국과 일본의 복지국가레짐 비교연구: 사회보장·젠더·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출판부, 325-347.
- 충북 사회적기업 협의회·충북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2012). 충북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수요조사 결과 자료.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조사연구소. (2012). 『2012년 충청도민 행복도 및 삶의 질 조사 연구 보고서 요약』.
- 한정균. (2010). 『삶의 질, 행복요인, 마음챙김 특성 간 관계: 인과관계와 간접효과의 탐색』. 충북대학교 상담심리·응용심리학 박사학위논문.
- 鎌田靖. (2011). 『ワーキングプア』から『無縁社会』へ: 見えてきたこの國のかたち. 『新しい公共と自治の現場』. コモンズ, 14-34.
- 桔川純子. (2011). 韓國市民運動の新しい展開: 『社會的企業育成法』成立の背景. 『アジア太平洋研究センター年報』, 3-9.
- 市民フォーラム21·NPOセンター. (2012). 『第15期事業計劃(案)』.
- 東海市企劃政策課. (2011). 『平成22年度まちづくりアンケート』市民生活の現状についてのアンケート』調査報告書』.
- C. Borzaga & J. Defourny. 2001. *The Emergency of Social Enterprise*. Routledge.
- Juliet Michaelson, Sorcha Mahony, & Jonathan Schifferes. (2012). *Measuring Well-being: A Guide for Practitioners*, New Economics Foundation, London.
-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3). *WHOQOL Study Protocol*, WHO (MNH/PSF/93.9), Geneva.

접수일(2013년 04월 16일)

수정일자(2013년 04월 29일)

게재확정일(2013년 05월 08일)